



향가의 기원성과 소통방식

The Communication Method of Hyangga(향가) as Praying Song

저자 (Authors)	이동근 Lee Dong-geun
출처 (Source)	인문과학연구 35 , 2010.8, 205-239(35 pages) Journal of the humanities 35 , 2010.8, 205-239(35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24672
APA Style	이동근 (2010). 향가의 기원성과 소통방식. 인문과학연구, 35, 205-23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19/10/30 14:3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향가의 기원성과 소통방식

이 동 근(대구대 국문학)

1. 서론

1. 1. 연구목적

이제까지 향가교육은 주로 형식, 작가, 훈고주석적인 방법에 의한 내용 설명, 향찰식 표기에 대한 해석과 현대역 등 작품의 외면에만 치우쳐 왔다. 그 결과 향가하면 재미없고 어려운 양식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 한문을 포함한 고전문학 기피 현상은 작품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방법의 미숙이나 잘못된 교육전통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향가를 가르칠 때 우리는 원래 향가가 노래였다는 점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가창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원요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라 사람들은 향가는 ‘천지귀신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대부분 천지귀신을 감동시켜 노래 내용처럼 모든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라인들에게 향가는 종교적 복음이나 다름없었고, 향가를 잘 지어 부르는 사람은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이는 향가가 원초적으로 기복성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¹⁾

구체적으로 월명사는 「도솔가」를 불러 나라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도모했고, 서동은 「서동요」를 불러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고, 처용은 「처용

1) 현존하는 신라가요는 대부분 종교적 신앙에서 창작되었거나 역사적 사건을 제재로 다루고 있어 종교성이 현저한 문예작품이다. 임기중: 「신라가요에 나타난 주력관」, 『신라가요연구』, 정음사 1979, 246쪽 참조.

가」를 불러 역신을 물리쳤고, 신충은 「원가」를 불러 왕의 신임을 회복했고, 용천사는 「해성가」를 불러 하늘의 이변을 물리쳤고, 월명사는 「제망매가」를 불러 요절한 여동생을 극락세계로 보냈고, 희명은 「도천수관음가」를 지어 실명한 어린 딸의 눈을 뜨게 했고, 광덕은 「원왕생가」에서 극락왕생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지극 정성으로 기도했고, 불도들은 「풍요」에서 노동공양을 통해 극락왕생을 기원했고, 균여는 「보현십원가」에서 『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의 중취(宗趣)를 통해 중생을 교화하고자 했고²⁾, 영재는 「우적가」를 불러 60여명의 도적을 회개시켰고, 충담사는 「안민가」를 불러 신하와 백성들에게 치국안민의 뜻을 전하여 경덕왕이 왕권을 공고히 하도록 하였다.

향가 25수 해독에 있어서 아직까지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향가의 형식도 '3구6명'의 해석에 따라 4·8·10구체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현시점에서, 향가의 형식과 제가의 향찰풀이를 고식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배경설화와 작품내용에 대한 학계의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가의 기원성과 소통방식을 우선 주지시키는 것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문학성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는 향가 장르를 새롭게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점에서 본고는 시도되었다. 이런 까닭에 본고에서는 개별작품의 내용·형식·표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학계에서 합의가 대체로 이루어진 작품내용을 기반으로 하여³⁾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균여전』 서문에서 중생을 교화하고자 「보현십원가」를 지었다고 했지만, 동서(同書) 「가행화세분」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 노래를 외워서 고질병까지도 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노래는 전파되어 인구에 회자되었고, 종종 담벼락에 쓰여지기도 했다. 사평군 나필 급간은 고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으나 고치지 못했는데, 스님이 가서 보고 그 고통을 가련히 여겨 「원왕가」를 주고 매일 낭독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어느 날 공중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성스런 노래의 힘을 얻어 반드시 병에 차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효험이 있었다. (“右歌播在人口 往往書諸墻壁 沙平郡 那必及干 麟廡三年 不能醫療 師往見之 憫其苦口授此願王歌 勸令常讀 他日有空聲唱言 汝賴大聖歌力 痛必差矣 自爾立效.” 『均如傳』 제7, 「歌行化世分」)
- 3) 이런 까닭에 본고에서는 향찰표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지 않고, 학계의 인용도가 높은 김완진의 현대역을 가지고 내용 및 구조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2. 연구사

향가의 주술성에 대해 가장 먼저 주목한 학자는 이능우⁴⁾(1956)인데, 그는 향가를 ‘마력적(魔力的)인 힘’을 가지고 있는 노래로서 ①소원이 이루어지는 힘을 가진 노래, ②이미 희망을 성취한 것처럼 부르는 노래, ③자신의 소원을 표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자연스레 길하게 되는 모습을 지닌 노래로 구분하였다. 김열규⁵⁾(1972)는 주술적 성격이 뚜렷한 향가 작품만을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 작품으로 「도술가」, 「서동요」, 「혜성가」, 「원가」, 「처용가」와 같은 작품을 주가(呪歌)로 보았다. 이밖에 김동욱(1961), 장덕순(1974), 임기중(1981), 장진호(1989)⁶⁾ 등도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향가의 불교적 성격에 대하여 조운제⁷⁾(1954)는 향가 작가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월명사, 충담사, 영재 등과 같이 향가의 작가는 승려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보현십원가」 11수와 『삼국유사』 소재의 14수의 향가도 반수 이상이 불교 관련 작품이라고 하였다. 최철⁸⁾(1985)은 향가를 불교 포교를 위한 선전의 노래로 파악하면서, 향가에 나타난 여러 신이한 현상을 주술성보다는 불교에서 보이는 이적(異蹟)이나 범력의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밖에 정병욱(2000), 이병기(1965), 김사엽(1985)⁹⁾ 등도 향가의 불교문학적 성격에 대하여 좌단(左袒)하였다. 이들 유형의 작품으로 미륵하생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도술가」, 정토사상을 담고 있는 「원왕생가」, 천수관음에게 현세적 소망을 비는 「도천수관음가」, 아미타사상을 담고 있

4) 이능우: 「향가의 마력」, 『현대문학』 제 21호, 현대문학사 1956.

5)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김열규/정연찬/이재선: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6)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장덕순: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 일지사 1974.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장진호: 「신라향가의 주술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9.

7) 조운제: 『한국시가사상』, 을유문화사 1954.

8) 최 철: 『신라가요연구』, 새문사 1985.

9)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증보판, 신구문화사 2000. 백철/이병기: 『國文學全史』 증보판, 신구문화사 1965.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5.

는 「제망대가」, 중생구제사상이 담긴 「풍요」와 「우적가」 등을 들었다.

이재선¹⁰⁾(2003)은 시가 자체의 미학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향가의 서정성에 주목하여 향가를 찬송적 서정성(찬가), 기원적 서정성(기도), 주술적 서정성(주가), 교훈적 서정성(교훈시), 순수서정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선학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향가의 주술성, 불교성, 서정성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으나, 이들을 기원성이란 통합의 관점에서 향가의 기능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발견되었다. 이에 필자는 향가 25수 중 기원성의 범주에 드는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유형은 어떻게 나눌 수 있으며, 상대에게 화자의 기원을 전달하는 소통방식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3. 연구방법

본고는 향가가 기본적으로 “희망의 노래” “기복의 노래”라는 점¹¹⁾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첫째, 향가의 기원성을 살펴보기 전에 기원(祈願)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신라의 샤머니즘과 불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절대자에게의 기원은 당대의 종교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 사상을 향가에 담아 작자는 어떤 예술적 효과를 거두려고 했는가 하는 것은 기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기능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인간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원요가 어떤 특정의 소통방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전달에 따른 일정한 방식이 도출될 수 있다면 이것은 기원요의 창작 문법이 될 수 있고, 이는 장차 학생들이 기원요를 이해하거나 패러디하여

10) 이재선: 「향가의 시적 어법과 수사」, 『향가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3.

11) 성기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찬양이라는 용어로 대신하였다. 이들은 모두가 호소의 형식을 통해 현실의 자발적 변화를 갈망하고, 호소의 형식을 빌어 지향적 세계를 기리고 찬양한다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성기옥: 「感動天地鬼神論의 논리와 향가의 주술성 문제」, 『고전 시가의 이념과 표상』, 임하 최진원박사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1. 75쪽

작문을 하고자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신라시대의 샤머니즘과 불교

향가가 당대의 신앙인 샤머니즘과 불교를 바탕으로 하여 지어져 불리어진 노래라는 점에서, 향가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라시대 종교에 대한 고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 1. 신라시대의 샤머니즘

샤먼은 아는 자, 춤추는 무당이란 뜻이 있다. 이러한 샤먼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신계와 교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악마와 요정을 쫓아내고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령스런 인물이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신에게 희생을 바치고, 접신(接神)을 통하여 미래를 예언하며, 귀신을 호출하고, 영계(靈界)를 살펴 인간의 흥악을 주재하였다. 한마디로 샤머니즘은 신과 교통하는 샤먼이 신령과의 접촉을 통하여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침으로서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다고 믿는 주술적 원시종교이다.¹²⁾

우리나라의 국조 단군이 무당이라는 설도 있지만, 무속이 문헌상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로서, 신라 2대왕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은 왕호(王號)이자 무칭(巫稱)을 의미하기에¹³⁾ 이 당시는 제정일치시대임을

12) 시베리아 샤머니즘 전통에 따르면, 최고신인 하늘의 신과 교류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최고의 샤먼뿐이다. 이런 하늘의 신과 교류할 수 있는 최고의 샤먼은 동시에 그 나라의 왕이기도 하였다.

13) 南解次次雄立(次次雄 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 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 爲慈充)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남해차차웅) 남해차차웅이 즉위하였다. (차차웅은 혹은 慈充이라고도 한다. 김대문은 말하기를, '이는 방언으로 무당을 이른다. 사람들은 무당을 통하여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공경하여 드디어 존장자를 칭하는 뜻으로 자충이라고 한다.' 라고 하였다.)

알 수 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경우도 성씨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¹⁴⁾ 주술사를 뜻한다고 보는 이도 있다.

신라시대 샤머니즘이 지배하였다는 구체적 증거는 다음과 같은 제례행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신라인은 왕경내의 생활 근거지에 대규모의 공동묘역을 조성하고 살았다. 고분의 형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먼저 땅을 고르게 하거나 약간 파고, 관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 토우가 부착된 항아리를 포함하여 각종 유물을 부장용으로 제작하여 일정한 형식의 의례를 치르면서 넣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덮는 과정에서 봉토 위나 호석 주변의 도랑에 말이나 토기를 신에게 바쳐서 의례를 치렀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생활과정에서 고분을 늘 보면서 살았고, 그 과정에서 왕이나 왕족과 같은 지배층의 권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주기적으로 묘역에서 치러진 의례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어 갔을 것이다. 이러한 고분에서 치러진 샤머니즘적인 의례행위는 불교가 도입되고, 율령이 반포되면서 사라졌다.¹⁵⁾

이외에도 역사기록에 나오는 신라시대 샤머니즘 관련 기사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년 9월에 왕이 병에 걸렸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이는 탁리와 사비가 저주하는 까닭이라’ 하므로 왕은 사자를 보내어 이를 사죄하였더니 곧 병이 나았다.¹⁶⁾

3년(148) 가을 7월에 왕은 平儒原에서 사냥하는데, 白狐가 울면서 따라 오므로, 왕은 이를 쏘았으나 맞지 않자 巫堂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여우란 높은 요망한 짐승으로 상스러운 일이 못되는데, 하물며 그 빛이 흰 것은 더욱 괴이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꼭진하게 말할 수

14) 박이란 木으로 卜점을 치는 샤머니즘의 주술사라는 뜻이다.

15) 유명하: 「토기로 본 신라인의 삶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장경호’를 중심으로-」, 쇠북소리, 국립경주박물관.

16) 十九年 九月 王疾病 巫曰 託利-斯卑爲祟 王使謝之 卽愈(『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없는 까닭으로, 이런 요망하고 괴이한 놈을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 반성하여 잘못을 고치도록 하라는 것이오니, 임금께서 만약 덕을 닦으시면 가히 화가 바뀌어 복이 될 것입니다.’하였다.¹⁷⁾

(…) 처음에 신문왕이 등창이 발생하여 惠通에게 보이주기를 청하였다. 통이 와서 呪文을 외우니 당장에 나았다. 이에 통이 가로되, ‘폐하가 前生에 宰相의 몸으로 臧人[노비]을 誤決하여 良人 信忠이 종이 되었으므로, 신충이 원한을 품고 還生할 때마다 보복하니, 지금 이 등창도 신충의 재앙이오니 마땅히 신충을 위하여 절을 세우고 명복을 빌어 원한을 풀게 하소서.’하였다. 왕이 옳게 여겨 절을 세우고 이름을 信忠奉聖寺라 하였다. 절이 낙성되자 공중에서 노래를 부르되, ‘왕이 절을 세움으로 인해 고생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났으니 원이 풀렸도다.’하였다. 그 노래 부른 곳에 折怨堂을 세웠는데 堂과 寺는 지금도 남아 있다.¹⁸⁾

이상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신라시대는 계층이나 생사를 넘나들면서 사머니즘이 지배하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향가를 교육할 적에 사머니즘에 대한 사전 이해는 필수이며, 또한 당연히 일부 향가는 주술적 노래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2. 2. 신라시대의 불교

신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시기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체로 5세기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가 공인된 시기는 약 100년 뒤인 6세기 법흥왕 때이다.¹⁹⁾ 진흥왕은 불교교단을 국가행정구역과 일치시켰는데, 이

17) 三年 秋七月 王田于平儒原 白狐隨而鳴 王射之 不中 問於師巫曰 狐者妖獸 非吉祥況白其色 尤可怪也 然天不能諱諱其言 故示以妖怪者 欲令人君恐懼修省 以自新也 君若修德 卽可以轉禍爲福(『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 차대왕)

18) 初神文王發疽背 請候於通 通至 呪之立活 乃曰 陛下 昔爲宰官身 誤決臧人信忠爲隸 信忠有怨 生生作報 今茲惡疽亦信忠所崇 宜爲忠創伽藍 奉冥祐以解之 王深然之 創寺號信忠奉聖寺 寺成空中唱云 因王創寺 脫苦生天 怨已解矣(或本載此事於眞表博中 誤) 因其唱地 置折怨堂 堂與寺今存(『三國遺事』 권5 「神呪 제6」 惠通降龍)

19) 법흥왕은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유용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귀족들의 반발은 여전히 강하였다. 이에 귀족들과의 타협으로 두 가지 방법을 내세웠다.

는 제정일치를 통해 자신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호법왕임을 자처한 것이었다.

신라 왕실에서 불교를 수용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앙 집권화를 위해 여러 부족을 통합해야 할 왕실의 입장에서는 무력에 의한 통합도 필요했지만 당시까지 여러 부족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고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통합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불교는 다른 종교나 사상에 대한 배타성이 아주 적었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중국화된 불교가 되었으며, 중국의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어울린 불교²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신라 초기의 불교는 신라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큰 영향을 끼쳤다. 첫째, 대승 불교에는 귀족적 미륵신앙인 ‘왕즉불(王卽佛)’사상, 즉 왕이 바로 현실 세계에서의 부처님이라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둘째, 불교의 ‘업(業)’과 ‘윤회(輪廻)’사상이 귀족의 특권을 정당화하여 계급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셋째, 불교 수용을 통하여 인도와 중국의 선진문화를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넷째, 호법을 호국으로 해석하여, 불교의 힘을 빌려 외적을 물리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²¹⁾

신라중기(통일 직전인 무열왕부터 혜공왕까지의 시기)는 무열왕 계통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독점하면서 전제왕권이 강화된 시기이다. 그러나

하나는 이차돈을 희생양으로 내세워 경주의 계림에 사원을 짓게 한 것이다. 계림은 토착 신앙의 입장에서 성지였으므로, 여기에 사원을 짓는 일은 귀족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예상대로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쳐 이차돈은 순교하였다. (...) 다른 하나는 귀족들에게 불교 공인의 대가로 상대등을 설치하여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20) 지금도 절에 가면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이 있지만, 절의 한 구석에는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사당과 산신당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 21) 황룡사 9층탑의 건립 배경이나 백좌강회의 개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의 제정, 연등회와 팔관회의 실시 등에 이러한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또 신라의 법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는 모두 불교식 왕명을 지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불교식 왕명에서도 호국불교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 때 불교에 있어서는 오히려 4~6두품 출신 승려(혜숙, 혜공, 대안, 원효)들에 의해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불교는 국왕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만민평등의 자비를 갖춘 대중종교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원효는 마음으로 부처를 받들면 누구라도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정도종을 보급하였다. 정토사상의 핵심은 일심론²²⁾으로 마음에 따라 성인·악인·여자·노비까지도 성불하여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하여 대중불교의 포교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또한 종파간의 대립을 완화하려는 화쟁사상²³⁾을 제창하였다. 뒤이어 의상은 화엄종을 열었는데, 이는 일(一)이 곧 다(多)요, 다(多)가 곧 일(一)이라는 원용사상이었다. 한마디로 신라초기 불교가 미륵신앙에 입각하여 왕권을 신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신라중기 불교는 정토신앙에 입각하여 만민평등의 자비적 종교를 지향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신라말기 불교는 불교교종이 쇠퇴하고 선종이 유행하였다. 불교의 핵심은 경전을 읽고 사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좌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불립문자(不立文字), 견성성불(見性成佛), 돈오점수(頓悟漸修)란 용어가 만들어졌다. 선종은 참선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개인성향이 강했다. 따라서 그 무렵 지방분권과 기존체제에 반발하던 지방호족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그리하여 선종 9산이 성립되었고, 유교 정치사상과 더불어 선종은 고려 왕조 개창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이 신라전기에는 교학 우세의 귀족 미륵신앙과 관음신앙이 지배했으나, 중기에 4~6두품 승려들에 의해 만민평등의 정토사상이 득세했고, 열반종·계율종·법성종·화엄종·법상종으로 5분된 교리에 실망한 신라후기에는 선종 우세의 중생 내세사상이 신라인을 지배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법흥왕 이후에는 샤머니즘보다는 불교가 백성들의 생활에

-
- 22) 일심론은 현실[예토]과 마음[정토]는 한마음으로, 마음에 따라 현실이 악몽이 될 수도 있고 정토가 될 수도 있다는 일체유심조를 가르키는데, 이는 대중불교의 기본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 23) 화쟁사상은 원효가 주창한 것으로 한 경론에만 집착하지 않고 여러 종파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융화, 통일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 독특한 사상 체계이다.

강하게 침투되었고, 그것은 향가 24수 중 「서동요」·「처용가」·「원가」·「안민가」·「찬기파랑가」·「모죽지랑가」·「헌화가」를 제외한 17수의 작품 속에 불교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에서 알 수 있다고 하겠다.

3. 향가의 기능적 유형

기도는 신명(神明)에게 복을 비는 행위인데, 넓은 뜻으로는 모든 종교적인 기원을 의미하는 기복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자연적 존재와 신자간 교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각 종교에서 구원의 기도는 대체로 동일하다. 단지 문자, 언어가 다르게 표현될 뿐이며 인간들은 대체로 예수, 부처, 모하메드, 유일신 그 외에 다양한 신들에게 인간 능력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

무엇인지 모를 무한한 능력을 원하고 갈구할 때 드리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의 내용은 청원, 감사, 참회, 찬미 등이다. 구체적인 효험을 기대하는 것은 주술 또는 주문이라고 한다. 모든 기도는 주술과 주문에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성황당, 장독대, 부엌 그리고 산천의 신성한 곳에 정화수를 떠놓고 순수하게 빌었던 어머니들의 기도도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가작품에 나타나는 기원은 그 대상이 원시종교 신인가, 부처인가, 대등한 능력을 가진 인간인가에 따라 크게 주술적, 불교적, 서정적 기원으로 나누어진다.²⁴⁾

3. 1. 주술적 기원요

주술적 기원이란 신(神)을 불러들이는 무당(巫堂, shaman)이 춤·노래·

24) 이 삼자의 구분은 존경과 복종의 기원인가, 지배와 자력의 명령강제인가, 인간적 대화인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J. G. Frazer: *The Golden Bough—A Study of Magic and Religion*, 1911-15, 63-78쪽 참조.

주문 등을 반복하면서 엑스터시 상태에 몰입 초자연력과 신령(神靈)을 발휘하여 농사·어업·수렵의 풍요, 개인과 집단의 안전, 전쟁의 승리 등을 기원하거나 병을 고치는 마술을 부리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주술적 언어의 특징으로 말리노프스키(Malinnowsky)는 “고도의 정서적 긴장, 전문적 용어, 강한 명령법, 희망·성공·성수(成遂) 등을 나타내는 동사”²⁵⁾ 등을 들었다. 이런 유형에 드는 향가 작품으로 「도술가」, 「처용가」, 「원가」, 「혜성가」를 들 수 있다.²⁶⁾

도술가

오늘 이에 산화(散花) 불려
 솟어나게 한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명(命)에 부리워져
 미륵좌주(彌勒座主) 되서 나립(羅立)하라.(김완진 역)

산화공덕이란 불교의 제례에서 범패를 부르며 꽃을 뿌리는 전통의식이다.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다. 김소월의 「진달래 꽃」 6행의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라 함은 “임 떠나는 길 위에 꽃을 뿌려 행복을 기원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륵보살은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받으면서 수도하다가,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授記)를 받은 뒤 도솔천(兜率天)에 올라가 천인(天人)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할 미래불이다.

이 작품에 대해 김열규는 꽃에게 미륵좌주를 모시라는 명령법으로 보아 불교신앙의 주술화로²⁷⁾ 보았고, 김동욱은 산화가를 불려 미륵을 청불

25) B. Malinnowsky: The Problem of Meeting in Primitive Lanmuars(I. A. Richard: Meaning of Meaning, London 1953, 34쪽.)

26) 김열규는 「향가의 문학적 연구」에서 주가적 향가로 「도술가」, 「서동요」, 「혜성가」, 「원가」, 「처용가」를 들었지만, 필자는 「서동요」에 대해서는 기능과 소통구조적 측면에서 서정요로 보고자 한다.

27) 도술가는 日怪의 被禳이란 그 효험에 있어서만 呪歌인 것이 아니라, 그 양식에 있어서도 의연히 주가인 것이다. 미륵좌주에의 귀의가 혹은 신심이 꽃 呪物에 의한 주가적 행위를 통한

하는 불교가요²⁸⁾로 보고자 했다. 그런데 “오늘 산화가를 부르며, 꽃잎을 뿌리노니 너는[꽃은],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미륵보살께서 하생 하도록 하라”라고 해석한다면 아무래도 불교적 청원요보다는 주술적 명령 요로 해석할 수 있다.

「도술가」는 경덕왕 19년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는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자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왕이 친히 월명(月明)에게 명하여 지어 부른 노래이다.²⁹⁾ 이일병현(二日並現)이라는 불안과 공포의 상황을 맞이하여 불리어진 「도술가」속의 소망은 하늘에 떠오른 두 개의 해 가운데 하나를 없애는 것이며, 그것은 동시에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의미하였다.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이 되도록 사라지지 않자, 일관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스님을 청하여 산화공덕의 의식을 치르면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월명사가 간택되어 「도술가」를 지어 부르니 언제인가 싶게 하나의 해는 사라지고 없었다. 여기서 창자인 월명사는 승려이지만 승려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전 주문을 통하여 주력을 발하는 주술승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처용가

동경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누구헨고.
 본디 내해다마는

여 표상되어 있다.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신라가요연구』, 정음사 1979, 100쪽.

28)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51, 60쪽.

29)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並現 浹旬不滅 日官奏 請緣僧 作散花功德 則可禳 於是潔壇於 朝元殿 駕幸青陽樓 望緣僧 時有月明師 行于阡陌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啓 明秦云 臣僧但 屬於國仙之徒 只解鄉歌 不閑聲梵 王曰 既卜緣僧 雖用鄉歌可也 明乃作兜率家賦之 其詞曰 (….) 忽有一童子 儀形鮮潔 跪奉茶珠 從殿西小門而出。” 『三國遺事』제 5권, 「感通」, 「月明師兜率歌」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김완진 역)

「처용가」는 자신의 아내와 역신(疫神)의 동침 현장에서 처용이 지어 부른 노래이다.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나자, 역신이 ‘공이 노하지 않으니 그 미덕에 감복했다(公不見怒 感而美之)’고 말하며 사죄하고 있다. 역신의 정체와 처용의 처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³⁰⁾ 여기서 논의할 점은 노래를 불러서 역신을 퇴치했다는 점이다. 또 처용이 그의 아내를 범한 역귀를 노래와 춤으로 감복시키자 자신의 화상을 그려 문에 붙인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 역시 주부(呪符)의 실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처용가」는 주술적 성격을 지닌 무가의 일종이고, 처용은 노래를 직접 불러 기원하는 바를 은밀하게 성취할 수 있는 주술사임이 분명하다.

원가

질 좋은 잣이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낮이 변해 버리신 겨울이여,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갖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처지여.(김완진 역)

「원가」는 효성왕 원년에 신충이 지은 작품으로 배경설화는 다음과 같

30) 김열규는 「처용가」는 사실만을 기술하는 서술법으로 일관된 듯 보이지만, 이러한 사실의 기술은 역질의 원인을 기술하고, 역신에 의해 병든 것을 의미하며, ‘역(逆)의 유사법칙의 주술원리’에 의해 역신이 물러나길 바라는 점에서 주가(呪歌)의 성격을 엿볼 수 있으며, 소극적인 명령법을 담고 있다(김열규, 1972, 25쪽)고 했고, 박진태는 「처용가」의 의문법에는 주가의 특징인 강제적이고 위화적인 명령법을 잠복시키고 있다(박진태, 1998, 32-33쪽)고 했으며, 신재홍은 역신이 범한 아내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고,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것은 처용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노래와 춤이라는 유희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신재홍, 2006, 140쪽)고 했다.

다.

효성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현명한 신하 신충과 궁중 뜰에 잣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며 말하였다.“다음 날 내가 결코 그대를 잇는다면 잣나무와 같음이 있으리라.”하니 신충은 일어나 절을 했다. 몇 달이 지나 왕이 즉위하고 공로가 있는 신하들에게 상을 줄 때 신충을 잇고 차례에 넣지 못했다. 신충이 이에 원망하여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잣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되었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살펴보도록 하였는데 나무에서 노래를 찾아내어 바쳤다. 왕이 크게 놀라“일이 너무 복잡하고 바빠서 공신을 잊었구나.”하고 신충을 불러서 벼슬을 주니,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³¹⁾

이 노래에는 주술적 내용이 문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효성왕에 대한 불만이 소극적 명령으로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을에도 푸른 잣나무에 대고 맹세했는데 어찌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는데도 너는 겨울에 마냥 푸르기만 하느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너도 푸르름을 잃어야 하지 않느냐고 신충은 간접적으로 주문(呪文)을 외고 있는 것이다.

옛날 목이(木異) 또는 목괴(木怪), 즉 나무의 영고(榮枯)는 곧 왕권의 흥망을 암시하고 있음이 중국과 한국의 문헌 여기저기서 발견된다.³²⁾ 그런데 배경설화에서 보면 신충 역시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걸면서 주문을 외워 말라죽게 했으니 왕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충이 잣나무에 붙였던 노래 역시 일종의 부적으로 악귀를 쫓거나 복을 가져다 주는 주술적 도구 역할을 충실히 했다. 식물과 인간이 교감하는 사례는 현대 인디언 사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고, 또 요즈음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식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원가」가 불러질 당시 잣나무의 고사는 신충의 주술적 능력이라고 믿었고, 그로 인해 신충이 등용되었으니 이 역시 기원이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31)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碁於宮庭栢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興拜 隔數月 王卽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帖於栢樹 樹忽黃悴 王怪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鞅掌 幾忘乎角弓 乃召之賜爵祿 栢樹乃蘇。”『三國遺事』제 5권, 「避隱」, 「信忠掛冠」

32) 김열규: 『황가의 문학적 연구』, 106쪽.

혜성가

옛날 동쪽 물가
 건달파의 논 성(城)을랑 바라고,
 왜군(倭軍)도 왔다
 햇불 올린 어여 수풀이여.
 세 화랑의 산(山) 보신다는 말씀 듣고,
 달도 갈라 그어 찾아들려 하는데,
 길 쓸 별 바라고,
 혜성(彗星)이여 하고 사된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은 떠가버렸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을 함께 하였습니까(김완진 역)

노래 자체에는 주술적 기원성이 문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건달파가 노는 성을 보고 왜군이 왔다고 잘못 햇불을 올린 것처럼 길쓸별을 보고 혜성이라고 잘못 사되었으니 걱정을 말라고 간접적으로 안도시키고 있다. 단지 배경설화에 다음과 같이 주술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혜성가」는 세 화랑의 유람길에 흥조³³⁾로 생각되는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자 용천사가 이 노래를 불러 성괴(星怪)를 해결하였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성괴 내지 자연의 변괴는 곧 외적 침해의 전조(前兆)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이런 점에서 배경설화의 기록에 용천사가 「혜성가」를 지어 부르자 “별의 변괴는 즉시 사라지고 일본 군사가 제 나라로 돌아가니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時天師作歌歌之 星怪

33) 혜성의 출현은 왕의 죽음, 국망(國亡), 병혁(兵革), 신왕조(新王朝) 출현의 예징(豫徵)으로 나타났다. (임기중 1981, 277-278쪽)

“혜성(彗星)이 나타나는 곳에는 천재(天災)가 있으며 이곳에는 국가가 망할 그런 대흉(大凶)이 예견되는 것이다. 혜성은 요성(妖星)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곳에는 병혁이 있기 마련이며, 전쟁 중 그 진영(陣營) 부근에 유성(流星)이 떨어지면 패하게 된다.” (윤영옥 1981, 24쪽)

34) 十一年 夏四月 大風東來 折木飛瓦 至夕而止 都人謠言 倭兵大來 爭通山谷 王命伊滄翌宗等諭之(『삼국사기』 신라본기 파사니사금조)

卽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라고 한 것은 양자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바와 같다. 여기서도 노래를 통해 바라는 꿈이 현실화되었으니 융천사 역시 승려이면서 사면이었던 시대의 주술승이라고 할 수 있다.

3. 2. 불교적 기원요

불교적 기원요란 불교사상에 근거하여 인간의 소원을 부처님께 간절히 희망하는 노래를 가르킨다. 이러한 유형의 향가 작품으로 「제망매가」, 「도천수관음가」, 「원왕생가」, 「풍요」, 「보현십원가」를 들 수 있다.

제망매가

생사(生死)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김완진 역)

「제망매가」는 월명사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위하여 재를 올리며 지어 부른 노래로 향가중 탁월한 비유법으로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1~4구는 죽음에 대한 인식, 5~8구는 인생의 무상함, 9~10구에서는 극락 세계에서 누이와의 재회를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래의 주제연은 9~10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미타찰에 가 있을 누이를 만나기 위해 월명사 자신은 더욱 불도에 정진하겠다는 극락왕생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징험은 요절한 누이를 위하여 재를 지낼 때 바쳤던 노잣돈이 바람에 의해 서쪽으로 날아갔다는 배경설화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망매가」는 치제(致祭)의 노래이면서 누이와 자신의 극락행을 기원하는 불교적 기복요로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인다.

도천수관음가

무릎을 낮추며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 앞에
기구(祈求)의 말씀을 두노라.
천개의 손엿 천개의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
두 눈 감은 나니
하나를 숨겨주소서 하고 매달리누나.
아아, 나라고 알아주실댄
어디에 쓸 자비(慈悲)라고 큰고.(김완진 역)

「도천수관음가」는 경덕왕 때에 한기리(漢岐里)에 사는 희명(希明)이 자신의 딸이 태어난 지 5년만에 갑자기 눈이 멀자, 아이를 안고 분황사 벽에 그려진 천수대비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지어 어린 딸에게 부르게 했다는 노래이다. 노래내용에 구체적 발원이 들어가 있다. 관음보살은 천수천안(千手千眼)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로, 칭병(稱病)이나 기원에 즉시 응답하여 청원자의 곁에 나타나 현실적인 재난이나 고뇌를 구하는 가장 대중성을 지닌 보살이다. 역시 천수관음은 희명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듯이, 이 역시 불교적 기복요라 할 수 있다.

원왕생가

달이 어째서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무량수불 전에
보고(報告)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서원 깊으신 부처님 우러러 바라보며,

원왕생 원왕생
 두 손 곧추 모아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아아, 이 몸 남겨두고
 48대원 이루실까. (김완진 역)

「원왕생가」는 수도승 광덕이 자신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바라는 노래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아미타불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달’을 매개자로 삼아 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여기서 달도 서쪽으로 가는 소우주라고 볼 때 자신의 소원을 서쪽에 있는 아미타불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애니미즘적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역시 이 노래를 부른 광덕은 극락왕생했고,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 그리고 도반인 엄장까지 극락세계로 인도했으니, 이 역시 불교적 기복요라 할 수 있다.

풍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서러운 이 많아라.
 서러운 중생의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온다 (김완진 역)

배경설화의 기록에 의하면 「풍요」는 양지(良志)라는 승려가 영묘사(靈廟寺)의 장육존상(丈六尊像)을 만들 때 온 성안의 불자들[남자와 여자들]이 다투어 흙을 나르며 불렀다는 노래이다. 박미정은 “오다”라는 말의 연속적 반복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 즉 공덕을 닦으러 오는 무수한 행렬의 모습을 예언하며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풍요」의 참요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³⁵⁾ 그러나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에 ‘공덕(功德)’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시피, 불도(佛徒)가 용맹정진의 한 방법으로 노동공양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³⁶⁾ 여기에는 공양에 참여한 사람들

35) 박미정: 「향가의 기원성에 대한 유형적 고찰」,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28쪽.

이 구체적으로 극락왕생했다는 결과는 없지만 불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고락이라는 서러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극락에서 태어나기 위해 현실계에서 고된 노동을 즐겁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 자체가 미래에 닥쳐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행동이라고 볼 때, 이 역시 불교적 기복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현십원가 11－ 총결무진가(總結無盡歌)

생계(生界) 다한다면
 내 원 다할 날도 있으리마는,
 중생 갱생(更生)시키고 있노라니
 갓 모르는 원해(願海)이고,
 이처럼 여겨 저리 행(行)해 가니
 향(向)하는 곳마다 선업(善業)의 길ियो,
 저마 보현행원
 또 부처 일이도다.
 아아, 보현(普賢) 마음에 귀어
 저 밖의 다른 일 버릴진저.(김완진 역)

이는 「보현십원가」 마지막 장으로 화엄경 권40에 있는 계(偈)의 내용으로 오로지 보현보살의 가르침에 귀의한다는 내용이다. 「보현십원가」는 일명 「보현십종원왕가(普賢十種願往歌)」, 「원왕가(願往歌)」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광종연간에 균여(均如)대사가 지은 향가인데, 『균여전』에 인용된 글에 『화엄경』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의 종취(宗趣)를 통해 중생을 교화하고자 한다는 창작동기가 밝혀져 있다. 내용은 보현보살³⁷⁾이 제시한 10

36) 최정선은 “오다 오다 오다”란 문자의 반복적 나열은 “공덕 뒤으러 오라”는 강력한 권유와 더불어 장육존상의 완성된 모습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언어와 심상 사이의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상 조성 행렬에 참여하지 못하고 스스로 낙오될 때, 극락왕생의 길은 멀어져서 고단한 삶 가운데 영영 헤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상대적 소외감과 절박함을 긴박하게 느끼게 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최정선 2005. 359쪽.

37) 보현보살은 문수보살(文殊菩薩)과 함께 석가모니불을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보살이다. 문수보살이 깨달음의 지성적 측면을 상징하고 있는 데 비해, 보현보살은 그 실천적 측면(보현행)을 상징한다. 보현은 중생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덕을 가졌으므로 연명보살이라고도 한다. 『화엄경』에 의하면 보살은 일찍이 비로자나불 밑에서 보살행을 닦았던 대표 보살

대원³⁸⁾을 균여대사가 스스로 행하고자 다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까지 불도들에게 이 십대원이 널리 신봉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노래는 “병든 자가 암송하면 병이 나았고, 사람들의 입으로 전파되어 담벼락에 종종 쓰였다.”는 『균여전』의 기록으로 보아 주력과 신이한 영험을 지녔던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균여와 같은 시대 사람이며 그의 「원왕가」를 한문으로 번역한 최행귀는 “균여의 향가는 중국의 사부를 능가하는 작품으로서, 송나라의 군신들에게까지 전파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그들은 균여를 일컬어 진실로 한 부처가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칭송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 작품은 불교의 대중화 차원을 넘어선 주력과 신이한 영험을 지녔던 불교적 기복요였음을 알 수 있다.

3. 3. 서정적 기원요

주술적 기원요와 불교적 기원요가 종교에 입각한 노래라면, 서정적 기원요란 순수한 인간의 내밀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자신 또는 상대적 인격체에게 간절한 소원과 갈구를 담은 노래를 가르킨다. 이러한 유형의 향가 작품으로 「서동요」, 「우적가」, 「안민가」를 들 수 있다.

서동요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서동방을

로서 구도자들에게 법계(法界)를 열어 보여주는 『화엄경』설법사로 알려져 있다. 야후 백과사전 참조.

38) 첫째는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니라.

밤에 알을 안고 간다.(김완진 역)

이 작품에 대하여 김열규는 서동이 장차 일어나기를 바라는 선행적 모방이요 주술적 계계(詭計)라고³⁹⁾ 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주가의 기본 속성인 명령법도 없고, 절대자에게 청원을 전하는 매개자도 없다. 그러니 이성을 얻기 위한 거짓 소문 퍼트리기[얼레리 꺄레리요]의 원형⁴⁰⁾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선화공주를 흠모하는 서동이 선화공주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하는 서정적 기원이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공주가 성밖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나쁜 소문이 궁중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선화공주를 궁 밖으로 추방당하게 하는 사술(詐術)을 쓴다.⁴¹⁾ 여기에는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저 평범한 인간들의 스캔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역시 이 노래에서도 노래의 내용대로 서동과 선화공주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

우적가

제 마음의
모습이 볼 수 없는 것인데,
日遠鳥逸 달이 난 것을 알고
지금은 수풀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강호(強豪)님,
머물 게 하신들 놀라겠습니까.
병기(兵器)를 마다 하고
즐길 법(法)을랑 듣고 있는데,
아아, 조만한 선업(善業)은

39) 김열규: 전계서, 101쪽.

40) 과거 시골마을에서 한 처녀를 짝사랑하던 총각이 누구누구는 누구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내어 처녀 가족들로부터 연인관계를 인정받고, 소문이 두려운 처녀집에서는 양가의 혼인을 서둘렀던 예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런 예에서 얼레리꺄레리요가 오랫동안 동요로서 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1) “問新羅眞平王第三公主善花(一作善化) 美艷無雙 剃髮來京師 以薯預餉閭里群童 群童親附之 乃作謠(…) 東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 將行 王后以純金一斗贈行 公主將至竄所 薯童出拜途中 將欲侍衛而行 公主雖不識其從來 偶爾信悅 因此隨行 潛通焉 然後知薯童名 乃信童謠之驗。”『三國遺事』 제2권, 「紀異」, 「武王」

아직 턱도 없습니다.(김완진 역)

「우적가」는 영재(永才) 스님이 남악(南岳)에 은거하기 위해 대현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조우한 60여 명 도적들의 강권으로 지어진 노래이다. 배경설화의 기록에 의하면,

영재스님은 천성이 활달하여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다. 향가를 잘하였는데 늙은 나이에 남악에 은거하려 했는데 대현령에 이르러 60여명의 도적을 만났다. 죽이려 했지만 영재는 칼날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태연히 맞섰다. 도적들이 괴이하게 여겨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 하였다. 도적들이 본래 그 이름을 들은 바 있었으므로 이에 명하여 노래를 짓게 했다.⁴²⁾

결국 노래를 들은 도적들은 영재 스님의 노래와 그 태연자약한 행동에 감격하여 모두가 창과 칼을 던지고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었다. 여기서 볼 때 도적들이 자신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 점의 동요 없이 처신하는 영재스님에 감복한 것인지, 아니면 향가의 깊은 뜻에 감복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영재스님이 향가를 잘 짓는다는 것이 향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향가를 지어주기를 바랬으니, 신라 사람이라면 비단 도적의 신분이라 해도 향가를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설화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적가」는 주술적인 노래가 아닌 단순한 서정요이지마는 “병기를 버리고 불법을 배우는 조그만 선업(善業)을 시작하시지요”라는 노랫말에 모두가 감복한 것으로 보아 영재스님의 서정적 기원이 이루어진 향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안민가

군(君)은 아미요

신(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

민(民)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실진대

42) “釋永才性滑稽 不累於物 善鄉歌 暮歲將隱于南岳 至大峴嶺 遇賊六十餘人 將加害 才臨刃無懼色 怡然當之 賊怪而問其名 曰永才 賊素聞其名 乃命□□作歌。”『三國遺事』 제5권 「避隱」, 「永才遇賊」

민이 사랑을 알리라.
 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할진대
 나라 보존할 것을 알리라.
 아아,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을 지속하느니라.(김완진 역)

「안민가」는 경덕왕이 왕권강화의 목적으로⁴³⁾ 충담에게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노래를 지어달라고 명하여 만들어진 향가이다. 신하가 군주에게 충고의 말을 하는 장면은 각국 역사기록에 많이 나타난다. 설총의 「화왕계」가 그렇고, 춘추전국시대 군주와 제자백가의 대화가 바로 그것이다. 충신의 간언을 받아들인 군주는 흥했고, 그렇지 못한 군주는 망했다. 「안민가」 역시 충담사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경덕왕을 위하여 왕도정치를 펴라는 충고의 노래이다. 다행스럽게도 경덕왕은 충담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君답게, 臣답게, 民답게” 각자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역할을 하도록 선정을 폈기에 다시금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노래한 대로 정치의 안정이 이루어져 마치 주술적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노래의 내용에 감동받은 군주가 치국안민에 충실하여 사회가 안정된 것으로 본다면, 이 역시 서정적 기원의 노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향가 25수 중 「찬기과랑가」·「모죽지랑가」·「헌화가」를 제외한 22수가 인간의 기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어지고 불려

43) 이 점에 대하여 박진태 교수는 「안민가」는 전제왕권의 강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권력구조에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의 불안이 야기되자 민본주의사상에 입각하여 전제왕권의 질서체제를 강조하기 위해 지어진 노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경덕왕(742~765)은 왕권전제정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구로의 천도를 추진하고 한화(漢化)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삼국유사』의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조에 의하면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덕왕 24년(765)에 팔공산을 중앙으로 하고, 토함산·계룡산·지리산·태백산을 동서남북으로 하는 오악체계를 정립하여 기존의 삼산(三山)-경주의 나락·영천의 골화·청도의 혈례-의 신과 함께 제사를 지냈다. (….) 여기서 충담사로 하여금 안민가를 창작하게 하여 귀족 계급을 왕권전제정치 질서에 통합하려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진태 2006, 60-61쪽.

진 목적요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향가의 기원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일연은『삼국유사』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작자미상의 노래에 작자를 붙여주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배경설화나 작품명 그리고 내용의 기원성과 일치시키는 작위성을 개입시켰다고 생각된다.

향가 작자 변증

작품명 : 작품명 풀이	작자 : 이름 풀이	배경설화	비고
「도솔가」: 도솔풀이	월명사(月明師) : 밝은 달과 인연이 있는 스님	이일병현의 천괴를 산화공 덕의식으로 물리침	천체와 통하는 작 자와 작품배경 상 관성 있음
「서동요」: 마을 캐는 아해 들의 노래	서동(暮童) : 마을 캐는 소년	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유 혹요를 부르게 함	작자와 작품명 일 치
「처용가」: 처용의 노래	처용(處容) : 관용을 보임	역신과 동침하고 있는 아내 를 보고 물러남	작자와 작품내용 일치
「원가」: 원망의 노래	신충(信忠) : 충심에 대한 신뢰	자신의 충성을 망각한 군주 를 원망함	작자와 작품내용 일치
「해성가」: 별뿔별 노래	융천사(融天師) : 천괴를 다스린 스님	해성이 심대성을 범하자 노 래를 불러 물리침	천체와 통하는 작 자와 작품배경 일 치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치 제한 노래	월명사(月明師) : 밝은 달과 인연이 있는 스님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올 려 극락천도시킴	천체와 통하는 작자와 작품배경 상관성 있음
「도천수관음가」: 천수관음에게 기 도한 노래	희명(希明) : 눈뜨기를 기원함	천수관음에게 기도하여 눈 먼 딸의 눈을 뜨게 함	작자와 작품내용 일치
「원왕생가」: 극락왕생을 기원 한 노래	광덕(廣德) : 덕을 널리 편 스님	재가승으로 용맹정진하여 극락왕생함	작자와 배경설화 일치
「풍요」: 노동요	작자미상	공덕의 노래를 부르면서 즐 겁게 불사에 참여함	

「보현십원가」: 보현보살의 열 가지 소원을 노래함	균여(均如) : 두루 통한 스님	노래를 불러 소원을 성취시켜 불법을 널리 전파함	작자와 배경설화 일치
「우적가」: 도적을 만난 노래	영재(永才) : 특별한 재주를 가진 스님	도적을 회개시켜 제자로 만듦	작자와 배경설화 일치
「안민가」: 백성을 평안히 하는 노래	충담사(忠談師) : 충간을 한 스님	경덕왕에게 왕도정치를 하게 하여 전제왕권을 강화시킴	작자와 작품내용 일치

위의 도표에서 보다시피 「도술가」, 「처용가」, 「원가」, 「혜성가」, 「제망매가」, 「도천수관유가」, 「원왕생가」, 「서동요」, 「우적가」, 「안민가」, 「보현십원가」 이상 아홉 작품은 작자의 이름이⁴⁴⁾ 작자와 작품명 일치 1편, 작자와 작품내용 일치 4편, 작자와 배경설화 일치 6편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편찬자 일연의 작자에 대한 작명은 기원성 강화의 또 다른 방안이었다고 여겨진다.

4. 기원적 노래의 소통방식

이러한 기원적인 노래는 어떠한 창작문법을 가지고 있을까? 기원적 향가의 일정한 소통방식이 발견된다면, 이런 유형의 작품이해와 창작지도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요의 내용구조를 전달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기원적 향가는 다음과 같이 우월적 명령형, 열등적 청원형, 수평적 설득형으로 나뉘볼 수 있었다.

기원적 향가의 소통방식

44) 필자는 이들 작품의 내용·배경설화와 작자명이 한결같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삼국유사』 편찬 시 작자미상의 작품에 작자명을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일찍이 박노준 교수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1, 24-33쪽 참조.

전달방식	해당 작품 (창작 연대)	명령자[창자]	수명자[청자]	내용구조	비고
우월적 명령형 (해라)	1) 도술가 (760) 2) 처용가 (879) 3) 원가 (737) 4) 혜성가 (579-631)	1) 주술승 2) 주술적샤먼 3) 샤먼시대 인간 4) 주술승	1) 꽃 2) 역신 3) 잣나무 4) 혜성	1) 문제-해결요구 2) 문제-각성촉구 3) 문제-이변촉구 4) 문제-무지(無智) 깨우침	상명하복
열등적 청원형 (제발 해주세요)	1) 제망매가 (742-765) 2) 도천수관음가 (742-762) 3) 원왕생가 (661-682) 4) 보현심원가 (917-973) 5) 풍요 (632-647)	불교시대 인간	1) 아미타불 2) 관음보살 3) 아미타불 4) 부처님 5) 부처님	문제(의 발생)-절대자 의존	하의상달
수평적 설득형 (해 주는 것이 좋을 거야)	1) 안민가 (742-765) 2) 우적가 (785-798) 3) 서동요 (599이전)	예지적 인간	수평적 인간	문제(의 발생)-청자의 설득	쌍방소통

위에서 보다시피 명령형은 주술적 기능요와, 청원형은 불교적 기능요와, 설득형은 서정적 기능요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작품의 창작연대를 살펴보면 샤먼시대, 불교시대, 인본시대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서로 혼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현대적 어법으로 설명하면 우월적 명령형은 상명하복의 직접적 또는 매개자가 있는 “해라체” 기원요, 열등적 청원형은 하의상달의 “제발 해주세요체” 기원요, 수평적 설득형은 쌍방소통의 직접적 “해주는 것이 좋을 거야체” 기원요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을 소통방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4. 1. 우월적 명령형

신화시대나 제정일치시대 샤먼은 인간의 요구를 절대자에게 전달하는 신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사고하는 동물인 인간은 어느 때부터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거나 대자연에 대해 인간적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원시종교를 만들었다. 그 초기적 형태가 애니미즘[만유신령], 샤머니즘[무격신앙], 토테미즘[동식물숭배] 등이었다. 이 시대의 신은 오로지 ‘대자연의 위엄’ 그 자체를 말하였다. 샤머니즘의 시대에 선 주술사가 하늘에 기도하고 주술을 외워 비가 내리도록 기원하는 단계이지, 신에게 직접 예배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종교의 단계는 아니었다. 죽은 이를 바라보며 내세도 현세와 같은 세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인격적인 신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의 사람들은 사제들의 제사를 통해 자연 현상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회 역시 샤머니즘의 형태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도시국가의 모든 토지는 신의 것이고, 사제는 신과 인간의 중계자였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 비와 구름의 아들, 강의 아들이라 주장했다.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의 결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왕은 자연을 주관하는 신의 아들이 되어, 엄청난 통치 권한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며, 관개사업을 하고, 전쟁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제의 역할을 왕이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전문적 사제가 등장하였다.

「도술가」, 「처용가」, 「원가」, 「혜성가」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창자의 샤먼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고, 창자는 직접적 주술의 대상[꽃, 혜성, 역신, 잣나무]이다. 그러기에 화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내용의 구조도 문제제시-문제해결 축구로 나타난다. 향가보다 이른 시기의 고대가요 중 「구지가」의 경우는 이들과 같은 상명하복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 문제제시-문제해결사 역할 축구-위협과 같이 내용구조가 한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역시 우

월적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술적 기원요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4. 2. 열등적 청원형

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바뀌면서 원시종교와 더불어 불교가 종교로 이 땅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제 인간들은 자신의 기원을 불교적 지존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제망매가」, 「도천수대비가」, 「원왕생가」, 「풍요」에서는 한결같이 열등적 위치에 있는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절대자에게 직접적으로 청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망매가」는 요절한 누이와 자신의 극락왕생을 아미타불에게 기원하고 있고, 「도천수관음가」는 실명한 어린 딸의 개안을 위해 관음보살에게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으며, 「원왕생가」에서는 자신의 극락왕생을 아미타불에게 기도하고 있고, 「보현십원가」는 보현십원의 실천을 통한 극락왕생을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풍요」는 영묘사 장육 존상을 조성하는데 노동공양을 하면서 함께 공덕가를 부르면서 부처님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노래는 한결같이 미약한 인간으로서 절대자에게 현실문제 해결이나 사후세계를 보장받고자 한다는 점에서, 내용구조는 당연히 문제제시-절대자에 귀의하는 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 3. 수평적 설득형

우월적 명령형과 열등적 청원형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초월적 기원이라고 한다면, 수평적 설득형은 인간대 인간의 문제이기에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잘 설득하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가」는 혼란스런 정치문제를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경덕왕에게 정치의 법도를 알려주는 내용이기에 거기에는 상식과 원칙이 있을

뿐이지 신비가 담겨 있을 수 없다. 법(法)이란 물(?)이 흐르듯(去) 하는 것처럼 역시 경덕왕도 조언해준 대로 유가적 왕도를 실천하여 정권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우적가」는 영재스님이 대현령에서 도적의 무리를 만났을 때 위협하는 도적들에게 거꾸로 설법을 하여 그들을 회개시키는 내용인데, 이 역시 현실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신자의 경우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화두를 가지고 번민하다가 고승대덕을 만나 일거에 깨우침에 들어 더욱 독실한 불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듯이 「우적가」의 도적들도 그와 같은 예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서동요」에 대하여도 제가의 견해가 있지만 고대가요일수록 상징적 의미분석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문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가에 충실하는 태도라고 생각된다. 즉 노래 내용 그대로 「서동요」를 거짓으로 선화공주가 바람났다고 공표하여 자신의 여자로 만들려는 열레리결레리요의 원형으로 보자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것이 선화공주를 나의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기도 하지만, 일반 상식대로 역시 그 작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때 이 역시 평범한 인간사회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수평적 설득형의 향가는 문제제시·청자의 수용이라는 보다 간편한 내용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원요를 압축하면 명령형, 청원형, 설득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연히 명령형은 우월자적 위치에서, 청원형은 열등자적 입장에서, 설득형은 수평적 입장에서 노래되었다. 이런 까닭에 명령형의 내용구조는 문제를 제시한 후 상대에게 직접 또는 해결사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청원형의 내용구조는 문제를 제시한 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하고, 설득형의 내용구조는 문제를 제시하고 수평적 상대를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여 동일화를 유도해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유형의 소통방식이 기원요의 일반적 창작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5. 1. 요약

우리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향가는 원래 노래의 가사였다는 점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가창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원요였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라 사람들은 향가를 천지귀신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본고에서 분석한 것처럼 천지귀신을 감동시켜 노래내용처럼 모든 것이 현실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향가의 기원요로서의 소통의 방식을 밝히기 위해서 첫째, 기원(祈願)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신라의 샤머니즘과 불교를 알아보았다. 둘째, 이들 사상을 향가에 담아 작자는 어떤 예술적 효과를 거두려고 했는 가하는 기능을 살펴보았다. 셋째, 인간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원요가 어떤 특정의 소통방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샤먼은 아는 자, 춤추는 무당이란 뜻이 있다. 이러한 샤먼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신과 교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악마와 요정을 쫓아내고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비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접신을 통하여 신에게 희생을 바치고, 미래를 예언하며, 귀신을 호출하고, 영계(靈界)를 살피 인간의 흥악사를 주도하였는데, 신라시대는 한동안 이러한 샤머니즘이 시종일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신라의 불교는 샤머니즘과 습합된 불교, 미륵사상, 정토사상, 호국불교, 염불지상주의, 선종 중시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술적 기원이란 신(神)을 불러들이는 무당(巫堂, shaman)이 춤·노래·주문 등을 통하여 엑스터시 상태로 몰입하여 초자연력과 신령(神靈)을 가지고 농사·어업·수렵의 풍요, 개인과 집단의 안전, 전쟁의 승리 등을 기원하거나 병을 고치는 마술을 부리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에 드는 향가 작품으로 우리는 「도술가」, 「처용가」, 「원가」, 「혜성가」를 들 수 있었다. 불교적 기원요란 불교사상에 근거하여 인간의 소원을 부처님께

간절히 원하는 노래를 가리킨다. 이러한 유형의 향가 작품으로 「제망매가」, 「도천수관음가」, 「원왕생가」, 「풍요」, 「보현십원가」를 들 수 있었다. 서정적 기원요란 순수한 인간의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소원과 갈구를 담은 노래를 가리킨다. 이러한 유형의 향가 작품으로 「서동요」, 「우적가」, 「안민가」를 들 수 있었다.

기원적 향가는 창작문법적 측면에서 명령형, 청원형, 설득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명령형은 우월자적 위치에서, 청원형은 열등자적 입장에서, 설득형은 수평적 입장에서 노래된다. 이런 까닭에 명령형의 내용구조는 문제를 제시한 후 상대에게 직접 또는 해결사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청원형의 내용구조는 문제를 제시한 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하고, 설득형의 내용구조는 문제를 제시하고 수평적 상대에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여 동일화를 유도해 낸다고 할 수 있었다.

5. 2. 남은 문제점

이상과 같이 이제까지 향가의 기능적 유형과 소통방식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향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란 해결의 실마리도 도출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교육현장의 각급 학교에서 향가의 감상과 창작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주제어** : 향가의 기능, 소통방식, 주술적 기원요, 불교적 기원요, 서정적 기원요, 우월적 명령형, 열등적 청원형, 수평적 설득형

◆ 참고 문헌

- 국어국문학회 편: 『신라가요의 연구』, 정음사 1979.
-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51.
-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5.
- 김승찬: 『향가문학론』, 새문사 1997.
- 김열규·정연찬·이재선: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김운학: 『신라불교문학연구』, 현암사 1976.
-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1.
- 박진태: 『한국 고전가요의 구조와 역사』, 형설출판사 1998.
-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 이재선: 『향가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03.
-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 장진호: 『신라향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6.
- 김소희: 「鄉歌의 話行論的 研究」,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박귀자: 「설득하는 말하기에 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박미정: 「향가의 기원성에 대한 유형적 고찰」,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성기옥: 「感動天地鬼神論의 논리와 향가의 주술성 문제」,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 임하 최진원박사 정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1991.
- 유상철: 「향가에 나타난 무교의식과 불교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능우: 「향가의 마력」, 현대문학 제 21호, 현대문학사 1956.
- 이혜령: 「주술 향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 고찰 : 설득적 말하기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임기중: 「향가문학과 신라인의 의식」, 문학과 언어 제23집, 문학과언어학회 2001.
- 장진호: 「신라향가의 주술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정창희: 「향가교육 내용 연구 - 呪術性を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최정선: 「민요의 불교적 수용으로서의 풍요연구」, 한국민요학 제 16집, 한국민요학회 2005.

- ◇ 논문접수: 2010년 7월 16일
- ◇ 논문심사: 2010년 8월 6일~8월 16일
- ◇ 게재결정: 8월 17일

◆ Abstracts

The Communication Method of Hyangga(향가) as Praying Song

Lee, Dong-geun

Hyangga(향가) is praying song turned out as one wishes. The study of identity having one's wish be requires ideal background, function and structure of works.

Shamanism in shilla have an effect constantive universe and Buddhism in shilla take on the character of mixing shamanism, transmigratonism, buddhism against enemies, reciting Namuamitabul(나무아미타불) & practice Zen meditation(참선).

Incantative praying songs are Dosolga(도솔가), Cheoyongga(처용가), Weonga(원가), Hyeseongga(혜성가). Buddhist praying songs are Jemang-mega(제망매가), Poongyo(풍요), Docheonsudaebiga(도천수대비가), Weonwangsangga(원왕생가), Bohyeonsipwonga(보현십원가). Lyrical praying songs are Seodongyo(서동요), Woojeogga(우적가), Anminga(안민가).

Praying hyangga in structure of works are classified as incantative order type, inferior petition type, even persuasion type. Incantative order types are includes Dosolga, Cheoyongga, Weonga, Hyeseongga. Inferior petition types are includes Jemangmega, Docheonsudaebiga, Wonwangsangga, Poongyo, Bohyeonsipwonga. Even persuasion types are includes Seodongyo, Woojeogga, Anminga.

The function of Hyangga & structure of works must study continually for the appreciation of Hyangga & practices in creative writing.

- ◆ Keywords : function of hyangga, method of communication, incantative praying song, buddhist praying song, lyrical praying song, incantative order type, inferior petition type, even persuasion type